

# 전남도, 올해 섬·어촌에 2556억 투입... 경제활성화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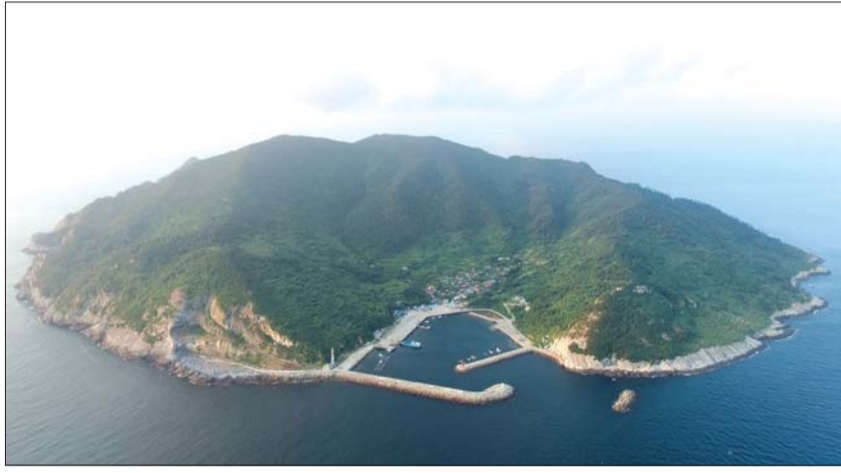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57개 사업  
공동작업장 등 섬 기반시설 확충  
신안 흑산도·여수 거문도 관광 육성

전남도가 섬과 어촌에 올해 2556억 원을 들여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섬 종합발전사업 ▲K-관광 섬 ▲어촌신활력사업 ▲어항정비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해수욕장 운영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이다.

전남도는 전국의 40%가 넘는 풍부한 어업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관광지,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4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박람회가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



완도 여서도.

리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과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 간 210억원을 들여 매력적인 K-관광 섬으로 집중 육성한

다는 복안이다.

7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준비 중이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인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299억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과 보수·보강사업을 추진, 어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양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1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성 울포 해양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키우고,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올해 6회째 열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남 섬과 어촌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외인 근로자 자원봉사단 발대식

창원시는 9일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시 최초의 외국인 근로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 명칭인 '다원(多ONE)'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봉사단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 출신 단원 30명과 봉사단을 이끌 내국인 2명이 합류한 32명으로 구성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안동시

#### 문화관광누리집 새단장

경북 안동시는 주요 관광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누리집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문화관광누리집은 사용자 중심의 알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총 5개 국어로 관광 정보 및 콘텐츠를 최신화 했다.

추천 여행길, 안동 즐기기, 안동 맛보기, 안동 쉬어가기, 문화유산, 여행안내 카테고리 중심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관광택시, 실시간 버스정보, 기상정보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영암군

#### 3개 대학과 RISE 사업 협력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남 서부권 3개 대학인 세한대·동아보건대·목포과학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암군과 3개 대학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대학을 지원·협력해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교육청

####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

경북교육청이 2025년 국제교류 운영학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공모한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문화 공감 능력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해 116개에 이어 올해는 120개 학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류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 달성군, 中企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신기술 연구개발 성공률 제고  
기술이전료, 시제품제작 등 지원

대구시 달성군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기업의 연구개발 기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개발 등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달성군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기획 지원사업'은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뛰어나나 기획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분석하고, 신기술 개발의 타당성·시장성·성공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성군은 사업 선정 기업에 연구개발 역량 진단, 기술-특허동향 및 타기

시장 등 사전기획 보고서 작성·제공, 연구개발과제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 기업·기관에는 기술이전료,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인증·시험 분석,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기관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둔다.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술개발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달성(대구)=김준한 기자 kih9@

## 광주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2700억 확보

상반기에 1900억 지급

광주시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자금 2700억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1900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

/광주=양수영 기자

## 경주시, 주요 교차로 2곳에 도시숲 조성

내년까지 2년간 60억 투입

경주시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에 나선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천북면 신당교차로와 현곡면 금장교차로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 60억원은 기금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으로 구성되며, 신당교차로에 40억원, 금장교차로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는 산림청 보고·자문회의와 도시



현곡면 금장교차로 전경

숲 조성·관리심의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기후대응 도시숲 2곳의 시설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울진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울진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마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에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